서울남지방회 교직자워크숍

목사, 장로 연합 야유회 가져

서울남지방회 교직자야외워크숍이 5월 6일(화)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수양관 숲속작은나라에서 있었다. 49회기인 서울남지방회는 '희년을 준비하는 해'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목사와 장로의 하나된 연합을 위하여 '교직자야외워크숍'을 준비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서경원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장로회 회장 박수남 장로의 기도가 있었고 '오렌지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 문제영 목사가 설교하였다.

이후 신용백 목사의 설명으로 수양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숲속작은나라를 탐방하였다. 점심식사 후에는 레크레이션을 갖고 팀워크를 다졌고 티타임과 저녁식사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서울남지방회는 이후에 '교직자해외워크숍'을 통해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남지방회주재기자 서경원 목사

서울지방회여전련 임원단, 성산푸른초장 위로 방문

10여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과 예배드려

서울지방회여전도회연합회 임원단이 지난 4월 10일 강서구 가양동 소재 성산푸른초장에 위로 방문을 하였다. 서울지방회여전도회연합회는 10여 년 전부터 위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설 이용자들을 돌보는 직원(봉사자 포함)을 위로해왔다.

올해에는 서울지방회 여전도부장 목사인 이길우 목사와 부원 이민철 목사도 함께 동행하였다. 이길우 목사는 예배 중 설교를 통해 사랑이 없으면 진정으로 섬길 수 없는 헌신을 실천하는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간다며 격려하였다. 이후 성산푸른초장의 현안인 자가 건물 이전과 후원의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홍금화 원장(성산푸른초장)은 매년 찾아와주셔서 고맙고 특히 올해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순애 권사(서울지방회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은 앞서 입해오신 임원들의 뒤를 이어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돌아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제공해주는 여전도회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임원들에게 고하였다.

서울지방회주재기자 이강호 목사

21C성결선교회, 춘계세미나 및 단합대회

회원 간 상호교류와 관계증진 위해 마련

교단내 목회자들로 구성된 21C성결선교회(대표회장 박기흥 목사)가 지난 4월 28~29일 덕산 리솜스플라스에서 회원 간 상호교류와 관계증진을 위해 춘계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부회장 김병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상임회장 김종열 목사의 기도, 회계 김정호 목사의 성경봉독, 직전 대표회장 진순천 목사의 '빌레몬처럼'이라는 제하의 설교, 대표회장 박기흥 목사의 인사, 사무총장 이두성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조병창 원로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상임회장 김장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는 공동회장 조규혁 목사의 기도, 상임회장 노윤식 목사의 '성결의 세계화'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저녁 시간에는 21C성결선교회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대표회장 박기흥 목사는 "21C성결선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단과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21C성결선교회가 되자"고 인사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21C성결선교회가 예성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내외 목회자들의 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CWM 한국지부, 전도훈련세미나 개최

오는 5월 12~13일 실로암교회, 15~16일 창신교회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CWM(Christ Witness Mission) 한국지부가 대전과 서울에서 52차, 53차 전도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12~13일 대전 실로암교회(박갑순 목사)와 15~16일 창신교회(이종복 목사)에서 각각 전도훈련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강사는 미국 CWM 대표 조복섭 목사와 박찬민 목사(복음만화가), 곽해신 목사, 이은경 전도사, 신현숙 사모 등이다.

CWM은 1989년 미국 LA 실로암교회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인종과 지역, 교파를 초월한 전도훈련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각국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중국 카자흐스탄 멕시코 등 전 세계 200여 교회와 신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인 전도 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어린이 전도를 위해 만화전도지도 제작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만화전도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월 설립된 한국지부는 전국에 30여 개의 바울전도단을 구성, 교회별로 왕성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CWM 본부대표 조 목사는 "CWM 전도훈련은 이미 전 세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탁월한 개인전도 훈련"이라며 "CWM 전도는 전도와 양육을 병행해 교인의 체질을 바꾸고 팀 전도를 통해 전 교인을 투철한 전도자로 훈련하는 역동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는 곽해신 사모(창신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한 여러 교회들도 전도단을 결성하여 전도하고 있으며, 개 교회는 물론 작은 교회 살리기와 지역교회 연합전도방법으로 추천하고 싶다"며 교단 소속 교회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했다. (문의: 010-4906-9333)

〈하단 광고 참조〉

성결대 24기 동기회 정기모임

"단합된 힘 모아, 교단 발전의 견인차 되자"

성결대 24기 동기회(회장 박종영 목사)가 지난 5월 1일(목) 오산성결교회(진상만 목사)에서 동기회 총회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기성 목사의 기도, 박종영 목사의 '왜 부르셨을까?'(엡 4:11~16)라는 제하의 설교, 조명선 목사의 봉헌기도, 한은기 목사의 광고, 정기남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부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진상만 목사, 부회장에 박종영 박정택 김기성 최상현 류제곤 박광일 목사를 선출했으며, 사무총장 한은기 목사, 서기 조명선 목사가 유임되었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친교의 시간에는 인근 카페에서 많은 동기목회자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며 어느 때보다 유익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동기회 회장으로 선출된 진상만 목사는 "단합된 동기들의 힘을 모아 교단 발전의 견인차가 되자."고 인사했다.